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



강릉시의회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문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결사반대!

강릉시의회는 9월 15일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발표한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와 「전용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에 대하여 모든 강릉시민과 함께 결사 반대함을 천명한다.

우리 강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뜨거운 애정을 밑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한 축구의 저변을 형성하고 명실상부한 「구도(球都) 강릉」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강릉시민들의 축구를 향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 속에서 강원FC는 2008년 강릉을 홈구장으로 창단할 수 있었다.

최근, 강원도는 향후 3년간 강원FC 홈경기 유치 공모제안을 진행하여 강릉시만 유일하게 전체 홈경기 유치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인 강원도는 스스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홈구장 건립 계획 백지화 및 홈경기 순환 개최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후보 시절 불공정에 맞서 단식투쟁으로 저항하며 공정함을 강조했기에 이번 발표 결과는 더욱 납득 할 수 없다.

더욱이, 강릉시의회 의장과 강릉시장이 「ITS 세계총회」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행된 기습적인 언론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이번 결정은 3년 후 강원FC 「춘천 단일 홈」으로 가는 수순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토록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道 제2청사 승격」 등 민선 8기 도정 공약 이행 가능성에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영서 지역의 정치적 편향과 일부 여론만 반영한 명백히 불공정한 결정이며,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원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발표를 전면 철회하라!

하나, 강원도는 발표까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홈경기 개최 도시」의 공정하고 올바른 재결정을 요구한다!

2022. 9. 23.

강릉시의회